

6.25 전쟁 당시 함평군 해보읍 광암리(불갑산)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인류학적조사*

박 선 주**

-
- I. 머리말
 - II. 함평 광암리 가정마을 뒷산 출토 유해의 인류학적 연구
 - 1.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 2. 전체 출토 유해의 인류학적 조사
 - 3. 유해의 인류학적 조사결과
 - III. 맺는말
-

I. 머리말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3일 만에 인민군에게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까지 밀린 국군은 인천상륙작전 및 낙동강 전선 돌파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며 북진하자 패주하며 퇴각로를 차단당한 인민군 패잔병과 당 요원 및 지방좌익들은 산으로 도주하여 대한민국체제에 도전

* 이 논문은 2009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9)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하는 빨치산²⁾이 되었다. 전라남도의 경우 빨치산들은 1950년 10월 5일 전남 인민유격대 총사령부가 발족되면서 1954년 4월 5일까지 3년6개월 동안 활동하다가 국군과 경찰에 의해 사살되거나 체포되었다(백, 1992).

전남 함평 해보면 광암리 가정마을 뒷산 유해매장지는 1951년 2월 20일(음력 정월 보름)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가 ‘堅壁靑野’라는 작전을 통해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지역 빨치산 토벌 작전 과정 중 전라남도 함평, 장성, 영광지역 거주 피난민들을 빨치산 또는 그 동조자로 간주하여 희생시킨 사건과 연관된 곳이다(戰史監室, 1954; 김, 2001; 육군본부 1959). 이는 함평 11사단 사건이라고도 알려져 있다³⁾. 당시 국군 「전투상보」에 따르면 ‘국군이 불갑산 주변에서 적 350여 명의 습격을 받고 작전을 하였던 바, 작전 결과 적 1,005명을 사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토벌했다는 공비는 민간인이라는 주장이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희생자 유해발굴의 일환으로 전남지역에서 국군의 빨치산 토벌작전의 일환으로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에서 진행된 소위 ‘대보름작전’ 중 해보면 광암리 불갑산 일원(가정마을 뒷산과 운암마을뒷산)에서 발생한 사망자들이 빨치산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유족

2) 빨치산(partisan 또는 partizan)이란 용어는 프랑스의 ‘파르티(parti)’ 즉 도당·동지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게릴라(guerrilla)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비라는 용어와 같은 뜻으로 이해되나 1950년대에는 빨치산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기에 이 글에서는 빨치산이라는 용어로 쓰기로 한다.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남지역(화순·담양·장성·영광) 11사단 사건’을 조사한 결과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전남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일대에서 수복 및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11사단 군인에 의해 수백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거나 행방불명되었다고 규명하였다(2009. 8.18 진실화해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임) .

들의 청원에 이 사건의 진실여부를 밝히고자 유해발굴작업을 실시하였다⁴⁾. 유해발굴조사는 이곳에 실제 유해가 매장되었는지, 매장되었다면 그들의 신분은 어떤지, 그리고 희생자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파악하여 주로 말로만 전해 오는 내용의 진위를 가리고자 하는 데 있다⁵⁾.

2010년은 6.25전쟁의 일어난 지 꼭 60년이 되는 해이다. 반세기가 넘어서 이제 동족상잔의 치참한 전쟁을 겪으며 잘못 알려지고 역사의 뒀안길에 가려진 역사의 실상을 밝혀내어 한국현대사의 제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연구들이 요구되는 때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발굴 결과 출토된 유해의 인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보면 광암리 가정마을 뒷산⁶⁾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신분을 규명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며 이 연구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증언자의 증언과 문헌에 기초를 둔 내용⁷⁾을 유해라는 실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4) 『한국전쟁사료』에 나타난 당시 11사단의 이동 및 교전상황, 전과 등 관련 기록과 생존자, 목격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사건의 발생 시기와 장소, 희생 경위를 비교해 보면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009, 진실화해위원회 보도자료)
- 5) 이 유해 매장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의뢰한 함평 유족회 회장(장제수) 등은 ‘적어도 적으로 알려진 1,005명 중 상당수가 피난온 민간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비토벌사』 등 당시 작전 관련 군 기록에서 적의 규모를 35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 「전투상보」에 기재된 사살된 적 1,005명이라는 숫자는 불갑산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민간인들이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 6) 발굴은 증언자의 제보에 따라 광암리 가정마을 뒷산(제1지점)과 운암마을 뒷산(제2지점)에서 실시하였는데 유해는 가정마을 뒷산에서만 출토되었다. 운암마을 뒷산은 빨치산 지휘부가 있던 곳으로 국군이 탈환한 후 이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민간인을 사살하였으며 희생자를 교통호 속에 묻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 7)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역을 나누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0명씩의 증언자를 선정하여 생애사를 녹취하고, 녹취된 구술증언의 결과와 의미를 서술하였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발굴팀과 인문사회팀의 밀접한 연계 조사를 위하여 같은 기관 소속을 구성하여 발굴 및 인문사회의 조사 효율성을 높였다.

II. 함평 광암리 가정마을 뒷산 출토 유해의 인류학적 연구

조사지역은 전남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가정마을 뒷산(제1지점)과 (사진 1, 2) 광암리 운암마을 뒷산(제2지점)이다(사진 3, 4)(지도 1). 조사는 2009년 6월 18일부터 8월 2일(45일)까지 순천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가 실시하였다. 발굴 제1지점인 광암리 가정마을 뒷산에서는 교통호⁸⁾에서 유해와 유품⁹⁾ 및 M1과 카빈 등의 탄피가 다수 발굴되었으며(사진 5, 6, 7, 8, 9), 유해는 모두 159구¹⁰⁾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에 보내져 감식되었다. 제2지점인 운암마을 뒷산(사진 3,4)에서는 유해는 허벅지뼈와 정강뼈 일부가 각각 한 켤씩 출토되었을 뿐이며 출토된 유품은 모두 국군이 사용한 M50, M1 및 카빈 등의 탄피와 군장 부속들이다.

1.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 8) 교통호는 불갑산의 지맥으로 광암리 가정마을 뒷산에 자리한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산등성을 따라 얇게 판 교통호가 약 180m 정도 이어져 있는데 호 앞쪽(동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호 뒤쪽(남쪽)은 산등성으로 약간 평평하다. 호 중간 60m 구간 안에서 유해가 131구 출토되었으며 동서 방향으로 난 35m 정도의 호 중 19m 정도의 구간에서 28구의 유해가 출토되어 모두 159구의 유해가 출토되었다.
- 9) 유품으로는 민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건과 여자들의 비녀, 아이들의 구슬, 작은 고무신들, 그리고 수저가 다수 출토되어 희생자가 대부분 민간인이며 남성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당시 생존자 문만섭(75세)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곳에 300여구 이상의 유해가 매장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진실화해위원회보고는 희생자가 90명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2009. 『진실화해』 3,4, p11).

연구 자료는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에서 인류학적 조사를 실시한 유해는 모두 159구로 모두 광암리 가정마을 뒷산(제1지점)에서 출토된 유해들이다.

유해는 먼저 제 짝을 찾는 작업을 하였으며 짝이 찾아진 유해는 개체별로 인류학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류학적 조사는 계측적·비계측적 방법을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남녀가늠하기, 나이 가늠하기, 키 재기 그리고 뼈의 형태적 특징을 밝혔으며, 가능하면 매장형태와 자세 및 사망원인 등에 대한 자료도 찾고자 하였다. 남녀를 가늠하기 위해서 먼저 머리뼈의 일반적인 특징과 엉덩뼈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사지뼈 그리고 엉치뼈의 특징도 조사하였다. 나이 찾기는 이빨이 솟아나는 정도, 이빨의 닳은 정도, 위턱 절치이음새 정도 및 사지뼈의 골단과 골간의 결합정도, 머리뼈 이음새 정도, 감춤뼈 이음새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가늠하였다(Todd, 1920; Miles, 1963; Krogmann, 1978; Ubelaker, 1980; Lovejoy, 1985; White, 2003; 김, 2006). 키 재기는 트로터와 글래서(Trotter & Glesser, 1958)의 연구 중 몽골로이드 복원공식을 이용하였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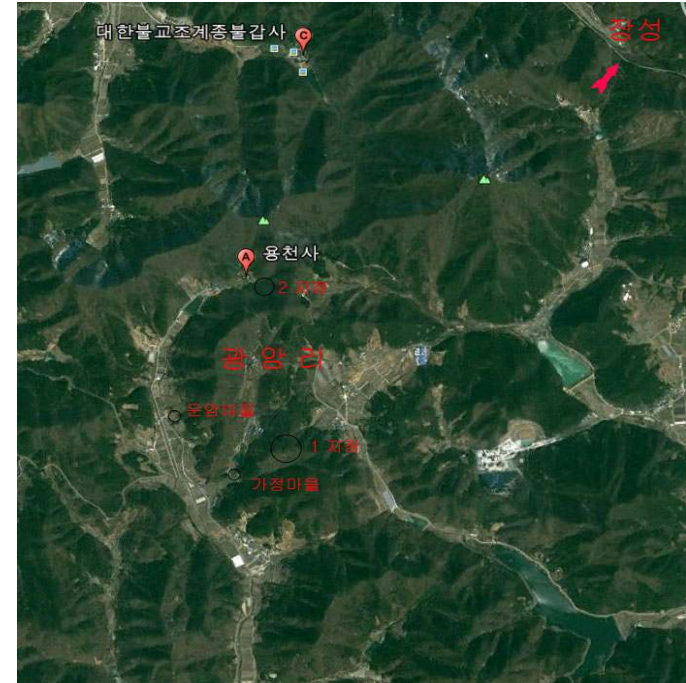
재기는 마틴(Martin, 1928)의 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학자들의 방법도 참고하였다(Howells, 1973; Brothwell, 1981; Bass, 1987; 丁, 1983). 좌우가 있는 경우는 모두 전 후 밀리미터로 표시하였으며 재기는 스위스 GPM사의 계측기들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개체가 지닌 해부학적 특징과 병리학적 현상도 찾고자 하였다(羅, 1970 ; 최외, 1999 ; Steinbock, 1974 ; Rathbun et al., 1984 ; Shipmann, 1985; Gill et al., 1990; Steele, et al., 1988; Simon Mays, 1998 ; Ortner, 2003 ; Kimmerle et al., 2008 ; Schmit et al., 2008).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우리말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고 우리말은 주로 손보기 등(손, 1992; 박, 1994)의 연구에 따랐으며 대한해부학회 연

11) 키 재기에 필요한 사지뼈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출토된 경우에는 이제훈 등의 연구 결과(이제훈외, 2009)를 이용하였다.

구를 참고하였다. 한국 사람과의 비교는 시마 고로(島五郎, 1934)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출토된 인골은 개체별로 개인 식별 차트에 해부학적 특징과 기타 특징을 기록하고 개체와 부위별로 사진촬영을 하였다.



지도 1.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1, 2 발굴지점

2. 전체 출토 유해의 인류학적 조사

유해의 인류학적 조사는 제 1지점에서 출토된 유해를 대상으로 부위를 알 수 있는 뼈(NISP)와 최소사망자수(MNI)로 남녀가늠하기, 및 나이가늠과 키재기, 허벅지뼈와 정강뼈의 특징 및 사망원인 등을 밝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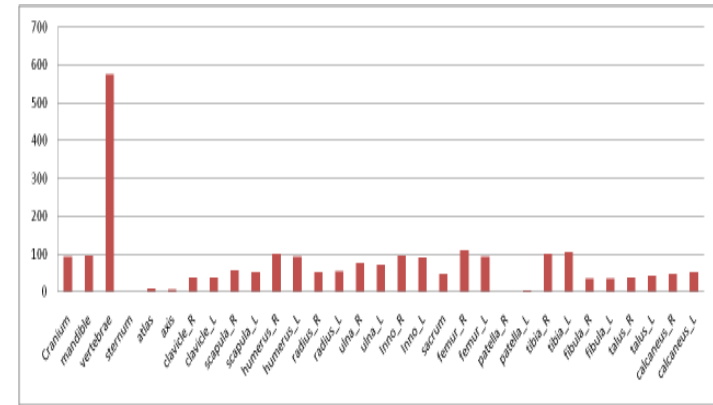
자 하는데 있다.

가. 부위를 알 수 있는 뼈(NISP: Number of Individual Specimen)

전남 함평 광암리에서는 가정마을 뒷산 제 1 지점 교통호의 '가'지구와 '나'지구에서 유해가 출토되었는데 모두 2,329점의 부위 식별이 가능한 뼈가 발굴되었다(표 1). 출토된 뼈대는 단단한 몸체를 지닌 사지 뼈가 주로 잘 남아 있으며(표 1), 아래턱과 머리뼈도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부분으로 남아 있다. 갈비뼈와 손·발가락 뼈들은 별로 남아있지를 않다.

[표 1] 함평 광암리 출토 유해의 NI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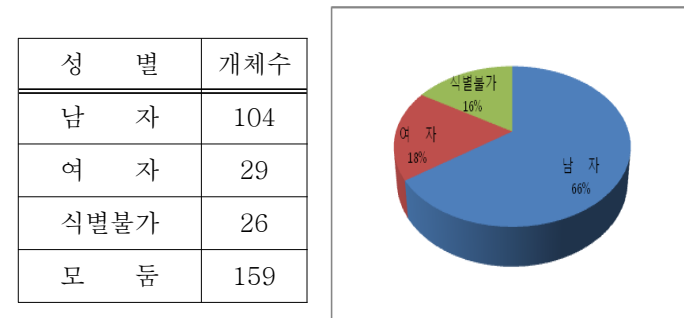
Cranium	Maxilla	Mandible	Vertebrae	Sternum	Atlas	Axis	Clavicle_R	Clavicle_L
94		96	574		10	7	38	39
Scapula_R	Scapula_L	Humerus_R	Humerus_L	Radius_R	Radius_L	Ulna_R	Ulna_L	Innocent_R
57	52	101	94	53	56	77	71	96
Innocent_L	Sacrum	Femur_R	Femur_L	Patella_R	Patella_L	Tibia_R	Tibia_L	Fibula_R
92	48	110	93	3	6	101	106	37
Fibula_L	Talus_R	Talus_L	Calcaneus_R	Calcaneus_L	Metatars_R	Metatars_L	모듬	
35	39	43	49	52			2,329	



나. 최소개체수(MNI : Minimum Number of Individual)와 남녀 기능

함평 광암리 제 1 지점 '가·나' 지구에서 출토된 유해는 모두 159구로 각 지점별 최소개체수는 '가'지구가 131구, '나'지구는 28구이다. 이 중 남녀 구분이 가능한 유해는 133구로 두 지점에서 출토된 유해 중 104구(66%)는 남자로 구분되었고 29구(18%)는 여자로 구분되었다(표2).

[표 2] 함평 광암리 출토 유해의 최소개체수와 남녀비율



광암리 출토 유해 가운데 남녀가늬를 할 수 없는 19세 이하의 미성년인 유해는 21구(81%)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특히 1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유해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아이 희생자 대부분은 교동호 '가'지구에서 여자들의 유해와 함께 출토된다.

또한 광암리 제1지점의 희생자 중 '가'지구에서 여자의 비율이 희생자 10명 중 2명 꼴(21%)로 나타나며 나이 어린 아이들의 희생 비율이 높은 점은 모자(母子)가 함께 희생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나'지구 출토 유해는 대부분 20대의 남자에 속한다.¹²⁾

다. 나이 가늠

함평 광암리에서 출토된 유해 159구 중 149구의 유해에서 나이가 가늠되었는데 출토 유해의 나이는 1살부터 60세까지 넓게 나타난다.

19세 이하의 유해는 35구로 나이가 가늠된 유해의 22%이며 15세 이하의 어린아이는 21구로 13.2%에 이른다. 20대로 가늠된 유해는 74구(50%)이며, 30대가 26구(17%), 40대가 10구(6.8%) 그리고 50대 이상이 5구(3.4%)이다.

출토된 유해 가운데 19세 이하 개체는 35 구로 전체 유해의 1/4(25.6%)정도이다. 이 중 남자아이로 분류된 유해는 12구이며 여자로 분류된 유해는 5구이고 가늠 불가는 18구(61.8%)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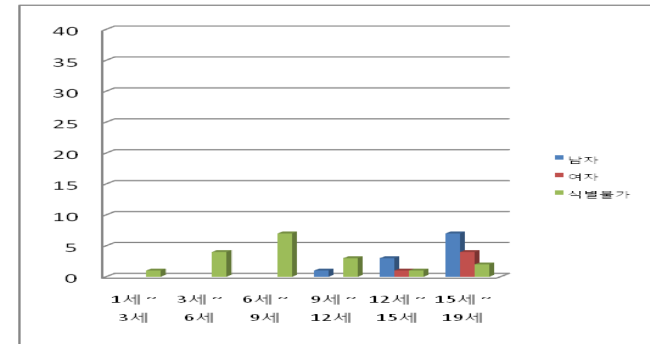
따라서 광암리에서 희생된 유해는 전체의 60% 이상이 20~30대의 건장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으며 40대 이상의 희생자도 10%를 넘는다. 특히 이 지역의 희생자의 특징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10대의 희생자 수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1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12) '나'지구에서는 20대 이상의 유해가 출토되고 유해수도 많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가'지구에서 먼저 처형이 있었고 '나'지구는 나중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가 전체의 14.3%에 달하는 점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표 3).

[표 3] 함평 광암리 출토 19세 이하 유해의 나이 가늠

나 이	남자	여자	식별불가	모듬
1세~3세			1	1
3세~6세			4	4
6세~9세			7	7
9세~12세	1		3	4
12세~15세	3	1	1	5
15세~19세	8	4	2	14
모 둠	12	5	18	35



라. 키 재기

함평 광암리에서 출토된 유해 159구 중 100구에서 키 재기가 가늠되었다. 이 중 남자 80구와 여자 18구에서 키 재기를 하였다. 남녀 식별은 불가능하지만 키 재기 가능한 유해는 2구로 135cm~139cm 사이에 있다. 남자의 경우 대부분은 150cm~169cm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96%), 여자의 경우 150cm~159cm 사이에 83%가량 분포하고 있다(표 4). 여자를 포함한 전체 유해의 평균키는 158.4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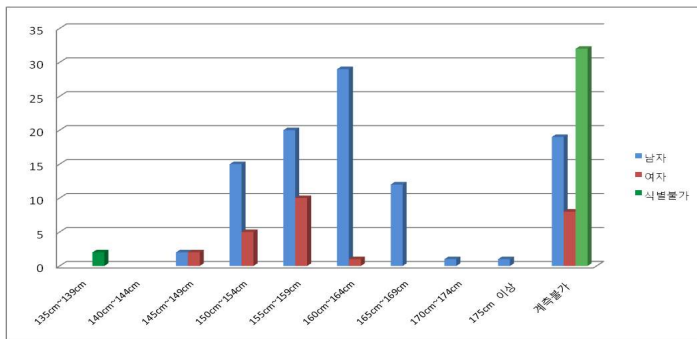
마. 허벅지뼈 편평지수

허벅지뼈 편평지수는 91구의 유해(남 78명, 여 13명)에서 관찰되었다. 조사는 20세 이상의 경우에 한하였다. 남자의 경우 84.6%(66명) 남작형이며 15.4%(12명)는 등근형으로 나타난다. 여자의 경우 92.3%(12명)가 남작형이다. 이런 점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다양한 일을 했던 것으로 가늠된다.

[표 4] 함평 광암리 출토 유해의 키 재기

키	남자	여자	식별 불가	모듬
135cm~139cm			2	2
140cm~144cm				
145cm~149cm	2	2		4
150cm~154cm	15	5		20
155cm~159cm	20	10		30
160cm~164cm	29	1		30
165cm~169cm	12			12
170cm~174cm	1			1
175cm 이상	1			1
계측 불가	19	11	29	59
모듬	99	29	31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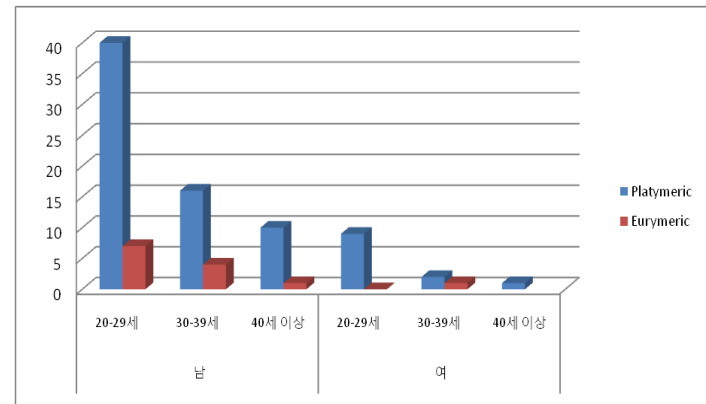
평균키 : 158.4cm



[표 5] 함평 광암리 출토 유해의 허벅지뼈 편평지수

(Platymeric Index of Femur)

Range 성 별	남자			여자			모듬
	20세 ~29 세	30세 ~39 세	40세 이상	20세 ~29 세	30세 ~39 세	40세 이상	
Platymeric	40	16	10	9	2	1	78
Eurymetric	7	4	1		1		13
모듬	47	20	1	9	3	1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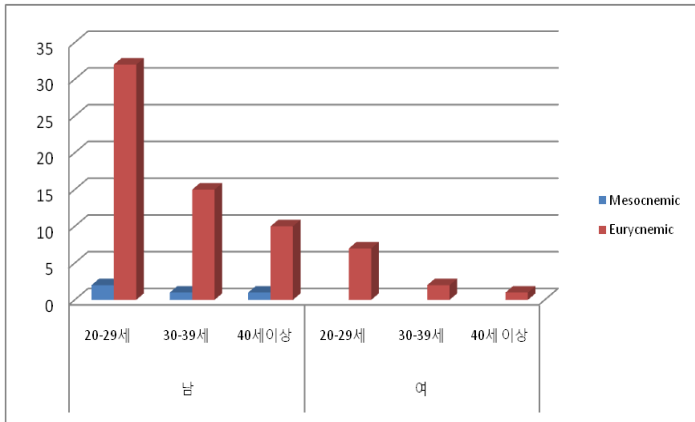
바. 정강뼈 편평지수

정강뼈의 편평지수는 모두 71구(남 61명, 여 10명)에서 관찰되었다. 유해의 나이는 허벅지뼈와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의 유해로 한정하였다. 남자의 경우 불룩형은 93%(57명)이며 여자는 100% 불룩형이다(표 6).

[표 6] 함평 광암리 출토 유해의 정강뼈 편평지수

(Platycnemic Index of Tibia)

Range 성별	남 자			여 자			모 듬
	20세 ~29 세	30세 ~39 세	40세 이상	20세 ~29 세	30세 ~39 세	40세 이상	
Mesoc- nemic	2	1	1				4
Euryc- nemic	32	15	10	7	2	1	67
모 듬	34	16	11	7	2	1	71



사. 사망원인

출토된 유해는 정형성이 없고 뼈대가 교통호 안 여기 저기 몰려 있으며, 탄피가 교통호 바깥 쪽(산 능선쪽)에 분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교통호 안에 피난민을 몰아넣고 뒤쪽에서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¹³⁾ 머리뼈에서 관찰되는 총상흔과 현장에서 출토된 많은 MI과 칼빈 소총의 탄피로 보아 이들은 대부분 MI과 칼빈 등의 소총으로 희생

당한 것으로 가늠된다.

3. 유해의 인류학적 조사결과

(1) 광암리 가정마을 뒷산의 발굴조사에서 완전한 형태의 유해는 별로 출토되지 않았는데 이는 유해가 교통호에 얽게 묻히고 발굴지역이 수분이 많으며 대부분 산성 토양을 지닌 야외 매장지여서 유해 보존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아이뼈의 경우 아래턱이나 허벅지 뼈 같은 단단뼈의 일부가 남아 있는 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환경 조건에서 다른 부위의 뼈들은 보존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2007년도(273/7)와 2008년도(710/5)의 여성 희생자에 비해 불갑산에서는 159구의 유해 중 29구¹⁴⁾가 여자로 구분되어 07, 08년도 조사에 비해 여자 희생자의 수가 훨씬 많은 데 이는 09년도 발굴조사 지역 중 함평 불갑산에서는 다른 지역의 희생자와는 달리 민간인 피난민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3) 나이 가늠은 유해 159구 중 149구에서 가늠되었는데 19세 이하는 34%로 전체 유해의 1/4정도이다. 특히 1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희생자가 전체의 14.3%에 달하는 점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현상이다.

(4) 키 재기는 159구 중 100구에서 가능하였다(남자: 80구 여자: 18구). 남자의 경우 대부분 150~160cm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150~159cm사이에 83% 가량 분포하고 있다. 2구는 남녀식별이

13) 당시 현장에서 살아난 증언자(문만섭, 75세)는 좁은 교통호에 3-4줄로 희생자를 세워 자리가 좁아 앞사람을 꼭 안아야 했으며 뒤쪽에서 총알이 날아왔다고 당시를 증언하였다.

14) 여자의 유해는 모두 제1지점인 교통호 '가'지구에서 출토된 131구 중 일부이다.

가능하지 않으며 135~139cm 정도의 키를 지닌 2구의 유해는 남녀 식별이 안 되나 어린아이로 기능된다.

(5) 허벅지뼈의 납작지수와 정강뼈의 편평지수를 통해 뼈대의 주인 공이 사회에서 어떤 일에 종사 했는 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허벅지뼈의 경우, 남녀 모두 뼈대의 성장이 끝난 20세 전후의 유해 91구(남 78, 여13)의 허벅지뼈의 납작 정도를 조사했는 데 남자의 경우 84.6%(66명)가 납작형platymeric이며, 등근형eurymeric은 15.4%(12명) 정도로 나타난다. 여자의 경우는 92.3%(12명)가 납작형이고 등근형은 1구 뿐이다. 남녀 모두가 대부분 농업 같은 일정한 육체적 노동에 종사했던 것으로 기능된다.

정강뼈의 경우 20세 이상의 71구(남 61, 여 10)에서 편평 정도가 관찰되었다. 남자의 경우 93%(57명)가 불룩형eurycnemic의 정강뼈를 지녔고 여자는 100%가 불룩형의 정강뼈로 나타난다.

(6) 함평 불갑산의 민간인 집단 희생자의 매장형태는 유해를 낮은 산 정상 고지에 구축된 교통호에서 처형한 채로 묻은 경우이다.¹⁵⁾ 사망원인은 모두 MI 및 칼빈 소총에 의한 총상에 의한 것이며 확인사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유해가 서로 엉켜있고 자세와 팔과 다리의 위치로 널려져 있는 점으로 교통호 안에서 한꺼번에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¹⁶⁾

위의 결과는 희생자들이 생전에 일정하게 힘을 쓰는 직업 즉 농업 등

15) 민간인 집단희생지의 매장 형태는 유해를 크게 고지의 교통호에서 처형한 채로 묻은 경우, 경사진 야산에서 일정하게 줄을 지어 사살한 경우, 그리고 동굴 밖에서 처형하여 굴 안으로 떨어뜨린 경우(경산 코발트광산) 등으로 구분된다.

16) 교통호 동쪽은 바로 급경사면이기에 희생자는 동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서쪽 산정상 쪽에서 희생자의 등쪽을 향해 사살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생존자의 증언과 일치한다.

에 종사했기 때문에 기능된다. 또한 지역에 따른 편평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타 지역에 비해 함평 불갑산에서는 허벅지뼈 편평지수가 납작형인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함평지역 희생자는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생업(예-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타 지역의 희생자와는 일정 부분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된다.

희생자들은 불갑산의 일맥인 가정마을 뒷산 산 능선을 따라 만들어진 좁은 교통호에 2~3 중으로 포개져 사살된 것으로 보이며 출토된 탄피의 위치와 교통호가 자리한 위치 등을 보면 몸 뒤에서 총격을 받았다.

Ⅲ. 맺는 말

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희생자 유해발굴은 전쟁 전후기 당시의 사회적 갈등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찾아 신분확인을 하고 후손을 찾아 명예회복을 하여 줄으로써, 과거사에 대한 진실·화해를 통한 사회적 통합의 기재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에 실시된 함평 불갑산지역 민간인 유해발굴은 2007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사업으로 진행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9년 유해발굴』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유가족들은 1,000 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고 주장하나 이 숫자는 불갑산 일대 전체 희생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불갑산 광암리 가정마을(제1지점)도 증언자가 진술하는 수(300여명)보다는 적은 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모두 159의 유해가 출토되었는데 이중 여성이 29명이며 19세 이하는 35명에 이른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대부분 유해매장지의 경우는 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이 집단으로 희생되었던 점에 반해 함평 불갑산 지역 출토 유해는 인류학적 조사 결과 유해의 상당수가 여자와 아이들로 밝혀짐으로서 당시 작전을 실시 한 군의 전투상보의 보고와는 달리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하여 함평 불갑산지역의 사진

은 당시 사건의 생존자가 살아 있어 희생자가 민간인이라는 내용이 구술로 전해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출토된 실체적 증거인 유해를 바탕으로 그 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갑산지역 사건이 전시수복 과정의 혼란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사 희생자가 빨치산과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절차 없이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으로 희생시킨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 한 것이며 특히 유해 발굴결과에서 보듯이 여성과 어린이들의 유해가 다수 발굴된 것은 이들의 희생이 인도주의에 반한 야만적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 당국의 전투상보 등에서 이들을 공비라고 부른 내용들이 삭제되거나 정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며¹⁷⁾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끝으로 2007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유해발굴사업은 2009년 12월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확실한 유해매장 추정지가 20여 곳 이상에 달한다. 유해발굴사업은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통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정체성의 확립이라는 민족사적 가치와 인권신장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미 발굴된 지역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역사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 한시적이란 이름하에 종료된다는 것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을 되새기며 이 사업의 역사적 소명을 위해 국가는 유해발굴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16일자 “진실결정문 ‘에서 불갑산일대에서 일어난 사건의 비인도적 행위와 위법행위를 들어 국가가 공식사과 할 것을 권고하고 이들을 위한 위령사업의 지원 및 군인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공식적으로 권고하였다.

[논문접수:2010.11.29, 심사시작:2010.12.04, 심사완료:2010.12.7]

주제어 : bulgapsan, civilian victims, anthropological survey, complementarity, public apology

<참고문헌>

- 김종열, 2006 『법치의학 : Forensic Odontology』 (지성)
- 김용택, 2001.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과학원)
- 島五郎, 1935. 「現代韓國人體質人類學補遺 : 頭蓋骨の部」 『人類學雜誌』 19(7): 1~23
- 박선주, 1994. 『체질인류학』 (민음사)
- 백선엽, 1992. 『실록 지리산』 (고려원)
- 戰士監室, 1954. 『공비토벌사』 (국방부)
- 이제훈, 한승호, 이우영, 김이석, 정인혁, 2009. 「한국인 정강뼈의 부분계측을 통한 최대길이추정」 『대한체질인류학회지』 22(3): 187~194.
- 丁士海, 1983. 「頭蓋骨某些角度的測量計算法」 『人類學學報』 2(4): 390~395.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충북대학교박물관, 2008.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7년 유해발굴보고서』 제 1, 2, 3 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충북대학교박물관, 2009.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8년 유해발굴보고서』 제 1, 2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충북대학교박물관, 2009.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9년 유해발굴보고서』 제 1, 2, 3권
- 육군본부, 1959. 『한국전쟁사료』
- 손보기, 1988. 『한국 구석기학 연구의 길잡이』 (연세대학교 출판부)
- 최병영· 한승호, 1999. 「한국인과 옛한국인 머리뼈의 비계측적 변이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中原文化論叢』 2:3:175~188.
- Bass, W.M., 1995. Human Osteology: A Laboratory and Field Manual (3rd ed.) Special Publication No. 2 of the Missouri Archaeological Society
329 Noyes Hall, P.P.Box 958 Colimbia, Mo.
- Brothwell, D. R., 1981. Dingging up Bones (3rd ed.) Cornell University, Itaca New York
- Howells, W. W., 1973. Cranial Variation In Man: A Study by Multivariate Analysis of Patterns of Difference Among Recent Human Populations Peabody Museum of Archaeology and Ethnology Harvard University : Cambridge, Massachusetts
- Gill, G. W. and Rhine, R.(eds.), 1990. Skeletal Attribution of Race The Maxwell Museum of Anthropology : University of New Mexico
- Krogman, W. A., 1978. The Human Skeleton In Forensic Medicine (3rd ed.) Charles S Thomas : Springfield · Illinois
- Lovejoy, 1985. Dental Wear in the Libben population: Its functional pattern and role in the determination adult skeletal age at death.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68: 47~56.
- Miles, A.E.W., 1963. The Dentition in the Assessment of Individual Age in Skeletal Material, 191-209 in D.R. Brothwell(ed.) Dental Anthropology. Pergman, Oxford.
- Martin, R., 1928. Lehrbuch der Anthropologie Zweite Auflage Zweite Band. Jena : Gustav Fisher.
- Neumann, G., 1942. American Indian crania with low vaults. Human Biology 14: 178~91.
- Rogers, S.L., 1977. The Stature of Early Southern California Indian Populations. San Diego Museum Paper 11, San Diego
- Simon Mays, 1998. The Archaeology of Human Bon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teele, D. G. and Bramblett, C. A., 1988. The Anatomy and Biology of the Human Skeleton Texas A & M University
- Suchey, J.M., 1975. Biological Distance of Prehistoric Cenral California Population Derived from Non-Metric Traits of the Cranium.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rity of California, Riverside.
- Titus, M.D. & Walker, P.L., 2000. Skeletal Remains from San Clemente Island. Pacific Coast Archaeological Society Quarterly, Vol 36, No 2.
- Todd, T.W., 1920. Age Changes in the Pubic Bone. I. The Male White Pubis.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3: 285~339.
- Trotter, M., & Gleser, G.C., 1958. A re-evaluation of estimation of stature based on measurements of ststure taken during life and of long bones after death.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16: 79~123.
- Ubelaker, D. H., 1980. Human Skeletal Remains: Excavation, Analysis, Interpretation. (2nd edition) Washington :

Taraxacum

White, T. D. and Folkens P. A., 1991. Human Osteology. Academic Press : San Diego · New York · Boston · London · Sydney · Tokyo · Toronto



사진 1. 제1지점 가지구 전경 사진 2. 제1지점 나지구 전경



사진 3. 제2지점 전경

사진 4. 제2지점 참호 전경



사진 5. 머리뼈안에 남아 있는 총탄



사진 6. 유해와 함께 출토된 유품



사진 8. 어린아이 유해



사진 7. 유해와 함께 출토된 유품



사진 9. 가지굴에서 출토된 20대의 유해

<ABSTRACT>

**Anthropological analysis of civilian
exhumation of Kwangam-ri
(Bulgap Mt.) in Haebo-up, Hampung
County, Chunnam Province during
the Korean War**

Park, Sun-joo

Haebomyeon Kwangam-ri, Hampyeong, Cheonnam is the setting and burial grounds of casualties from the warring factions that took place during the 6.25 war, particularly on February 20, 1951(Luna New Year full moon) when the armed forces sought to suppress partisans and sympathizer with the refugees of operations as if they were associated with an even. According to the words of one military record, the armed forces military actions around Bulgapsan totaled more than any other battle with about 350 operations; and 1005 were killed during the operations, a historical record. However, public interest groups have argued and filed for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civilian casualties, steadily focusing on families and civic groups and raising the need to identify the actual significance and substance of the case.

Conducted in 2009, the effort to excavate the remains of the civilian of Hampyeong Bulgapsan area was carried out under the

campaign "Civilian victims of the postwar Korea after war-related civilian victim group". Excavation at Bulgapsan Kwangam-ri area home village (locality 1), the interviewees stated that fewer than the number of civilians appear to be victimized. From all the 159 remains, 29 were female and 35 people under 19 years of age. While more than 1,000 civilians were said to be slaughtered at Bulgapsan, the families claim it was mostly at the expense of innocent civilians. Anthropological survey of deposits in the region shows remains of large number of women and children, suggesting the operation conducted was similar to military combat. Unlike the civilian victims of complementarity was found. Therefore, the military report said the battle of public funds called for complementary information, etc. Further action should be taken accordingly if this evidence need to be corrected or deleted, and the country's public apology is necessary.

Key words: bulgapsan, civilian victims, anthropological survey, complementarity, public apology